

문제 1

1. 일단 1문단 자체를 제시문 (가),(나),(다)를 요약하셨는데, 비교문제에 요약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교를 하는 비교 기준자체가 제시문의 중심 내용으로 포함될거고, 근거 또한 제시문에서 서술되기에 앞에 있는 요약은 비교내용의 중복서술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의미있는 진술이 아니므로 비교문제에서 요약을 하는 습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2. “이 제시문(가),(나),(다)는 모두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다수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 속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수의 존재와 역할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

라고 하셨는데 사회의 진보는 (다)에서 언급되 있고, 걸작을 진보의 개념으로 이해 하는 것 또한 무모한 추론은 아닙니다만, 제시문 (가)자체를 진보의 개념으로 바라보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혁명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제시되었는지 이것또한 제시문 불일치로 큰 감점입니다. 지나친 추론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안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단 제시문 (가)를 비교할 때, 사회 혁신이란 개념을 이용하는게 2번에서 말했듯이 좋지 않아보이며, 근거 서술또한 빈약합니다. 저급한 대중이 왜 문화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근거서술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며,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주장인 사회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근거와 주장이 따로 놓고있는 논지가 불분명한 글입니다.

4. 그리고 (나)도 사회 주체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모방을 하는 것이 주체적인 것이냐라는 데에 의문이 있습니다. 즉, 주장 자체가 다른 해석의 관점이 열려있기에 완벽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마지막 문단 자체도 제시문 이탈입니다. (가)도 문화 높은 대중, 문화 낮은 대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집단을 제시문 (가)전체로 판단한 오류이며, 제시문 (나)도 바로 위에서 주체성이라고 했고 (물론 틀린논지지만) 같은 답안내에서 주체성이 떨어지는 수동적 대중으로 바라본 것은 답안도 틀렸을뿐더러 같은 답안내의 통일성까지 떨어지는 답안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시문 근거가 틀렸기에 비교 기준자체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